

감성 평가를 위한 감성의 의미 재정립과 어휘 체계에 관한 연구

정 현 원¹ · 나 건²

¹김포대학 실내디자인과 / ²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A Study on the Meaning of Sensibility and Vocabulary System for Sensibility Evaluation

Hyun Won Jung¹, Ken Nah²

¹Department of Interior Design, Kimpo College, Gimpo, 415-873

²International Design School for Advanced Studies, Hongik University, Seoul, 110-770

ABSTRACT

'Emotional value' has been a buzz word for design and ergonomics in the era of business innovation. However, the complication of 'emotion' in terms of literal and practical meaning has made it a challenging but confusing task for designers to develop a new product with emotional value. 'Sensibility' and 'emotion' are interchangeable terms to describe human feeling ('gamsung' in Korean). The confusion reached at its peak with Korean terms. Even scholars in Korean language, psychologists, ergonomists, and designers are bewildered at the choice of proper expression for human feeling in both Korean and English. The difficulty could explain the problems in 'sensibility ergonomic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both fundamental and satisfying information with people in the area of 'sensibility ergonomics'. Therefore, in this paper, a number of articles and books on sensibility, psychology, sensibility ergonomics, and design were reviewed to clarify the meaning of sensibility and relationship among similar words that have been used with unintentional misunderstanding. Also many adjectives on human sensibility were collected and compiled for the use of sensibility evaluation.

Keyword: Meaning of Sensibility, Sensibility Evaluation, Vocabulary System, Emotion, Feeling

1. 서 론

현재 우리 사회는 제품, 실내공간, 도시환경 등 디자인 된 결과물들이 인간의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는 시대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감성의 이해와 감성을 잘 반영한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성을 디자인에 본격적으로 응용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노력은 일본에서 시작된 감성공학이

한국에 소개된 1990년대 이후 라고 할 수 있다(나가마찌, 1997). (사실, 미국에서는 인간공학적 제품디자인(Ergonomic Product Design)의 일부분으로서 감성공학이 1940년대부터 다루어져 왔다.) 그 이후, 감성공학 기법을 적용하여 혁신적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감성을 제품이나 생활환경의 디자인에 응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진정한 의미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문적으로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기반 정립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수행되었던 감성 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감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유사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감성이라는 용어는 유사어인 '감정'이라는 용어와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감성의 개념에 대응되는 정확한 영어 표기가 없다. 감성에 대한 영어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emotion'이라는 단어도 일부 학자들이 '감성'으로 번역하여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둘째, 인간의 감성은 국문학, 심리학, 디자인, 공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모두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이다. 따라서, 다학제적 교류 및 연구를 통하여 관련 분야에서 공동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개념을 정의해야 하고 또한 감성 측정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 및 관점에서 거론되고 있는 감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 보고자 심리학, 국문학, 감성공학,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논문들을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국문학자들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감성 평가에 필요한 어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감성 어휘를 사용한 평가의 기본적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감성 어휘를 기초로 감성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인 의미분별(Semantic Differential: SD)법의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감성의 개념

2.1 감각

'감각(感覺)'이란 빛과 소리와 같은 외부 세계의 사상(event) 및 통증과 같은 신체에 수용되는 자극이 중추신경에 전해졌을 때 일어나는 의식 현상으로 정의 된다(네이버 백과사전). 인간은 감각을 통하여 외부 세계를 인식하게 되며, 그 결과 감정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감각은 신체 외부에서 오는 외부 감각과 신체 내부에서 오는 내부 감각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 감각은 외관에 의한 감각을 말하고, 내부 감각은 내장 감각, 호흡 감각, 소화 감각 등을 말한다. 그리고 이외에도 운동 감각, 전정 감각이 있다<표 1>. 감각이 생기기 위해서는 ① 감각 자극을 받아 들이는 감각 수용기, ② 수용기에 자극이 잘 작용되도록 활동하는 감각 기관, ③ 자극에 의하여 수용기에 생긴 흥분을 신호로 해서 중추신경에 전달하는 감각신경, 그리고 ④ 신호가 도달하는 대뇌의 표면, 즉 대뇌 피질의 감각영 등이 관여하고 있다. 결국, 감각령의 신경 세포가 신호를 받아서 흥분하면 감각이 생긴다.

표 1. 감각 지각의 분류(Zimmer⁹2001: 60 참고)

자극 (Stimuli)	감각 수용기 (Receptors)	감각 기관 (Sensory Organ)	감각 시스템 (Sensory System)
빛의 파장	광 자극 수용기	눈	시각(Visual)
음의 파장	기계적 자극 수용기	귀	청각(Auditive)
접촉 (포위, 열, 통증)	촉각-, 열-, 기계적 자극 수용기	피부, 손, 입	촉각(Tactile)
화학적 자극	화학적 자극 수용기, 기계적 자극 수용기	입, 구강, 혀, 입천장	미각(Gustative)
기체의 화학 물질	화학적 자극 수용기	코, 비강	후각(Olfactory)
몸의 움직임	자기(自己) 수용기 (proprioceptors)	힘줄, 근육, 관절	운동 감각 (Kinesthetic)
가속도	기계적 자극 수용기	전정기관	전정 감각 (Vestibular)

2.2 감정

'감정(感情)'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이다. 감정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영어는 'emotion'이다. 옥스포드 사전에 의하면, emotion은 '1. a strong feeling, such as joy or anger, 2. instinctive feeling as distinguished from reasoning or knowledge'라고 설명된다. 또한, emotion의 어원을 보면, 라틴어 'e + motio'에서 유래된 단어로 이것은 '밖으로(e) 움직이다(move)', 흥분하다(excite), 휘젓다(stir up), 동요시키다(agitare)라는 의미를 가진다. 즉, 인간에게 발생한 어떤 사건의 직접적인 결과라기 보다는 인간의 마음 속에서 생각한 것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감정적 경험과 관련된 4가지의 변수에 초점을 맞춘다(원종철, 2000). 그 4가지의 변수는 상황 평가, 신체 변화, 표현적 행동, 그리고 동기유발 행동이다. 예를 들어, 분노하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에 대한 모욕적 상황을 평가하고, 가슴이 갑자기 뛰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의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며, 이를 악물고 양미간을 찌푸리는 식의 얼굴 표정을 나타내고, 직설적으로나 은유적 방식으로 상대방을 한 방 먹이려는 충동을 가질 것이다. 이것이 분노라는 감정에 대한 전형적인 범주이다. 즉, 감정은 생리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강한 심리적 상태의 변화이다. 심리학자들은 1880년대 이후로 감정 상태에 따른 신체 변화에 대해 연구해 왔다(W. James, 1884). 이 연구의 중심은, 다양한 감정적 상태는 생체 반응의 특유한 패턴을 동반하는가에 대한 오랜 논쟁이었다(P. Ekman, R. Levenson, W.V. Friesen, 1983). 캐논(W.B. Cannon, 1929)은 분노와 두려움 같은 모든 극단적 감정은 폭발적인 몸의 활동을 준비하는 일반화된 응급 반응, 즉 그런 감정 상태를 수반한

다고 설명한다. 교감적 각성으로 알려진 이 패턴은 자율신경 조직의 교감 부분의 확산적 활동에 기초한다. 그래서 심장 박동수와 맥박수의 증가, 호흡량의 증가, 피부 혈관의 수축, 동공의 확장, 위장 활동의 정지, 타액의 감소, 땀샘 활동의 증가 등과 같은 반응이 나타난다. 그 반응 조직은 부분적으로 아드레날린 분비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B. Parkinson, 1995). 이러한 특성을 가진 '감정'은 일반적으로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성을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평가 및 분류가 가능하고, 거짓말 탐지기(polygraph)와 같은 장비를 이용하면 감정 변화에 의한 생리적 변화의 측정이 가능하다.

2.3 감성

'감성(感性)'의 사전적 정의는 1.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 2. 이성(理性)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외계의 대상을 오관(五官)으로 감각하고 지각하여 표상을 형성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 정의된다. 감성의 의미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영어는 'sensitivity'이다. sensitivity는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capacity for sensation or feeling: responsiveness or susceptibility to sensory stimuli' 라고 정의되고 있다. 즉, 감각력 또는 감수성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감성'이라는 용어가 학계에 과급되기 시작한 것은 '감성공학'의 개념을 도입한 일본 마즈다(Mazda)의 자동차 개발의 성공(이순요, 양성모, 1996; 나가마찌, 1997)과 1988년 제10회 국제 인간공학 총회(IEA)에서 정서공학이라는 명칭을 감성공학으로 바꾸면서라고 할 수 있다. 감성공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감성의 개념은 '환경의 변화나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자극에 대한 인간 내부의 고차원적인 심리적인 체험으로 쾌적감, 고급감, 불쾌감 등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이다. 이구형(1998)에 의하면, 감성은 외부 자극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 변화될 뿐 아니라 개별적 요인(연령, 성별, 교육, 건강, 심리 상태 등), 사회적 요인(가족관계, 정치, 지역사회, 경제, 자연 환경), 문화적 요인(전통, 풍습, 종교, 인종, 생활문화 등)에 따라 변화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감성은 개인성을 주축으로 변화성, 불확실성, 애매 모호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감성의 이해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고려와 문화적 상황과 같은 사회적, 시대적 흐름에 대한 이해를 통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필요로 한다.

2.4 감정과 감성

이구형(1997)이 정리한 감정과 감성의 비교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감성은 외부로부터의 감각 자극에 대한 반응이며, 감정에

표 2. 감정과 감성의 비교(이구형, 1997)

	감정(emotion)	감성(sensitivity)
심리 변화의 강도	높음	낮음
생리적 변화	있음	관찰안 됨
표정 및 행동 변화	있음	없음
객관적 측정, 평가	가능	불가능
일상생활 중 발생빈도	낮음	높음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늦음	빠름
자의적 조절	가능	불가능
기타	두뇌에서의 판단과정을 거쳐서 발생	반사적, 직관적, 무의식적 발생, 개인성, 변화성, 모호성

비하여 강도가 낮다. 감성은 사물이나 환경을 접할 때마다 갖게 되는 '예쁘다,' '그저 그렇다,' '마음에 든다,' '좋다'와 같은 일반적인 느낌들을 말하며, 감성은 감정과 비교하여 외부로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 즉, 감성은 상황에 따라 갖게 되는 다양한 서로 다른 느낌이다. 따라서 한 개인의 감성 변화를 다른 사람이 알아 보기는 힘들며, 따라서 객관적인 측정 및 평가가 어렵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감정은 그 빈도가 낮은 것에 비하여 감성은 사물, 환경 등 외부 자극에 대해 느끼는 순간마다 발생되며 무의식 중에도 발생된다. 특히 감성은 개인성을 가지게 되는데 감성의 발생이 생활 경험의 기억과 같은 개인의 내부적 상태에서 기인하여 직관적이고 반사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외부 자극에 의해 일반적으로 경험되는 감정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감성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나, 생활 경험과 같이 기억되고 축적됨에 따라 개인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등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감정은 노력에 의하여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나 감성은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조절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감성은 감정이나 논리적 의사결정보다 앞서서 감각 자극에 대한 정보 처리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이구형, 김영준, 1997).

2.5 Emotion과 Feeling

뇌신경학자 다마시오(Damasio, 1994)는 emotion과 feeling을 구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emotion은 정신적 상태에 대한 어떤 신체적 반응인데 비해, feeling은 자극에 대한 지각과 이어서 나타나는 감정 상태와 사고의 복합체라고 하였다. emotion과 feeling의 구분은 감정과 감성을 구별한 것과 유사한 개념 구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emotion은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감정' 또는 '정서'의 의미로 사용되며, 심리학 사전에서도 감정은 정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 두 가지 모두 emotion에 대응한다고 말하고 있다(조경덕, 남기춘, 2002). 또한, emotion은 '감성'으로도 번역된다. 국내 논문의 예를 보면, 원종철(2000)은 '감성과 이성(emotion and reason)'이라는 논문에서 'emotion'은 '감성'으로, 'feeling'은 '감정'으로 번역하였으며, 최미경(1997)의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라는 논문에서, 'feeling'은 '감정'으로 'emotion'은 '정서'로 번역하고 있다. Emotion, feeling과 함께 사용되는 또 다른 유사어인 'affection'은 'feeling or emotion, especially as manifested by facial expression or body language'라고 정의(http://sb.thefreedictionary.com/)되며, '정서' 또는 '감정'으로 번역된다.

2.6 감성의 개념 정리

감성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즉, 감성은 신체 반응을 동반하는 감정에 비해 직관적, 무의식적, 복합적인 감정으로 그 의미가 확대된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정량적 및 객관적 연구의 어려움으로 감정 연구에 비해 연구의 대상으로는 많이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감정에 대한 연구는 이미 1880년대부터 시작되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감정과 감성을 분리하여 감성의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시도(나가마찌, 1997)와 emotion과 feeling을 구별하고 있는 연구(Damasio, 1994)는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감성 및 감정의 의미 혼돈과 더불어 emotion, feeling, sensibility 등의 영어 표기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성에 대응되는 대표적인 영어 표기는 sensibility라고 할 수 있으나, 감성은 sensibility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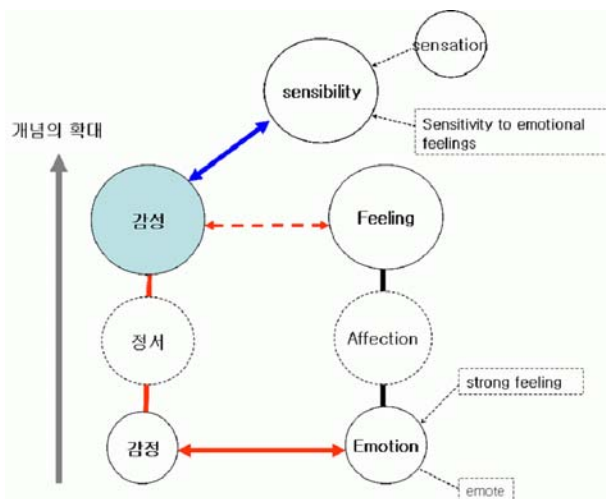


그림 1. 감성의 개념 정의

념이다. 다마시오의 구별에 의하면 감성은 feeling의 개념과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감성의 개념 정의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 사용의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3. 감성 어휘의 분류 체계 및 어휘 조사

감성 측정 또는 감성 평가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어휘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감성 어휘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감성 요소를 기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감성 어휘의 분류체계를 파악하고자 우리말 형용사 어휘 체계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3.1 우리말 형용사 어휘의 분류 체계

우리말 형용사의 의미적인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문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최현배, 1937/75; 천기석, 1984; 남기심과 고영근, 1985; 홍사만, 1985; 김미형, 1989; 신순자, 1991). 그림 2~5에서 제시된 이들의 형용사 분류 체계를 살펴 보면 '감성'이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성상(性狀)'이라는 용어이며, 성상의 의미는 '사물 내부의 성질과 외부의 상태', 또는 '사람의 성질과 행실을 이르는 말'로서 형용사의 본질적인 의미와 상통한다. 감성은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력, 또는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복합적 심리 체험 현상으로서 '감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성상' 형용사로 간주할 수 있다. 성상이라는 용어는 초기 문법에서부터 쓰였으며, 최현배(1937/75)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신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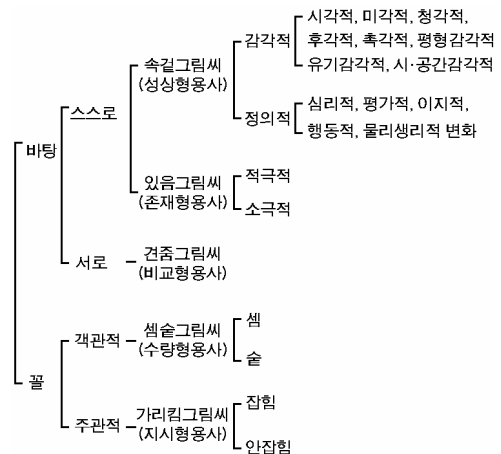


그림 2. 형용사 분류 체계(최현배, 1937/75)

자, 1991). 형용사 분류 체계는 학자들에 따라 약간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남기심과 고영근(1985)은 성상의 범주를 아주 넓게 설정하여 형용사 중 지시 형용사를 빼 모 든 형용사를 포괄하고 있으며(그림 3), 홍사만(1985), 김 미형(1989)은 그 범위를 좁혀 감각, 감 정, 속성만을 포함 시키고 있다(그림 4,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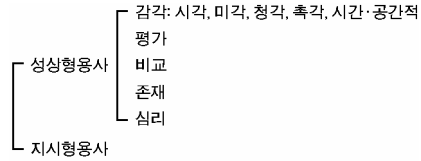


그림 3. 형용사 분류 체계(남기심, 고영근,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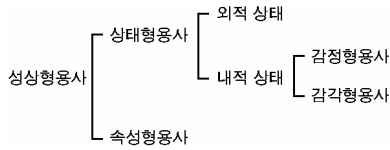


그림 4. 형용사 분류 체계(홍사만,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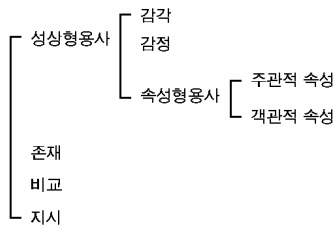


그림 5. 형용사 분류 체계(김미형, 1989)

'속성(屬性)'은 '사람이나 사물이 지니는 특징 또는 본질적 인 성질'을 일컫는다. 김미형(1989)은 속성을 '주관적 속성' 과 '객관적 속성'으로 나누고 있고, 신순자(1991)는 주관적 인 속성을 '평가라는 용어로, 객관적인 속성을 '존재'라는 용 어로 대체하고 있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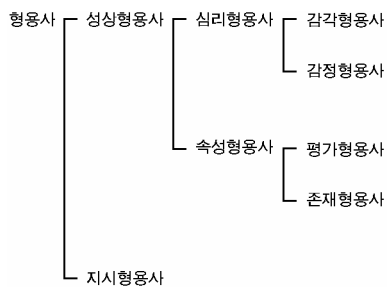


그림 6. 형용사 분류 체계(신순자, 1991)

3.2 감성 어휘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감성 어휘를 신순자(1991)의 형용사 분류 체계에 따라 감각 어휘, 감정 어휘, 평가 어휘, 그리고 존재 어휘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어휘 체계에 해당하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감각 어휘

분류	감각어휘		
시각 평가 어휘	색채어:	검다, 거무끄름하다, 새까맣다, 거뿔거뿔하다, 검디검다	
		희다, 하얗다, 희멀겑다, 싹하얗다, 희끗희끗하다	
		푸르다, 새파랗다, 질푸르다, 푸르디푸르다, 파릇하다	
		누렇다, 노랗다, 노리끼리하다, 샛노랗다, 시누렇다	
		붉다, 옅붉다, 붉디붉다, 새빨갳다, 불그레하다	
	명암어:	밝다, 흰하다	어둡다, 어둑침침하다
	청탁어:	맑다, 깨끗하다, 말갛다	흐릿하다, 탁하다
촉각 평가 어휘	표면 촉각어:	거칠다, 가칠/까칠하다, 거칠/끼칠하다, 깔/깔끄럽다, 가슬가슬/거슬거슬하다, 깔깔/낄낄하다	매끄/미끄럽다, 만지/만지럽다, 미끈미끈하다, 만질만질하다
		보드/부드럽다, 보드/부드레하다, 보들보들/부들부들하다, 보송보송하다	
		무르다, 말랑/물랑/물렁하다, 몽클몽클/몽클몽클하다, 몽실몽실/몽실몽실하다	
		외다, 굳다, 딱딱하다, 단단/탄탄/똥똥하다, 땡땡/땡땡하다, 뻣뻣/뻣뻣하다	
	온도 감각어:	차다, 차갑다, 차끈하다, 차끈차끈하다, 차디차디, 춥다, 시리다	따/뜨끈하다, 따/뜨스하다, 뜨뜻미지근하다, 따스하다, 따사롭다, 덥다, 무덥다, 뜨겁다, 다사롭다
	통각어:	아프다, 아리다, 수시다, 따깝다, 결리다	
청각 평가 어휘	조용하다, 잠잠하다, 고요하다	소란하다, 요란하다, 시끄럽다, 떠들썩하다, 요란스럽다	
미각 평가 어휘	기본 미각어:	짜다, 짹짹/짹짹하다, 간간/건건하다, 짹짹하다, 짜디짜디	
		쓰다, 씹씹하다, 씹새래하다, 검쓰다, 쓰디쓰다	
		시다, 시름하다, 새콤하다, 새콤하다	
		달다, 달콤하다, 달착지근하다, 달씩하다, 달디달디	
		뽕다, 띠름하다, 뽕디뽕디, 띠떠름하다, 텃텃하다	
		맵다, 매콤하다, 얼근하다, 얼큰하다, 맵싸하다	
	싱겁다, 삼삼/삼심하다, 밍밍/밋밋하다		
	종합 미각어:	맛있다, 맛나다, 맛깔지다	
	융합 미각어:	새콤달콤하다, 시금털털하다, 시금썩썩하다	
	유기 감각어:	답답하다, 가쁘다, 갑갑하다, 고프다, 느끼하다	
후각 평가 어휘	향긋하다, 고소하다, 비릿하다, 퀴퀴하다, 지릿하다, 구리다		

3.2.1 감각 어휘

감각 어휘는 사물이나 상태의 속성에 대하여 신체 외부 기관(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신체 내부 기관(호흡기, 소화기, 배설기)이 가지는 유기 감각의 객관적 판단과 관계된 형용사이다. 감각 어휘는 감각 기관별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해당되는 어휘들의 예는 <표 3>과 같다.

3.2.2 감정 어휘

감정 어휘는 객관적 가치 평가보다는 주로 내면적 또는 주관적 감정이나 심리가 작용하는 의미 영역을 묘사한다. 감정 어휘의 의미 영역에 따른 분류 기준은 인간의 기본 감정에 관한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의 감정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략 4~8가지로 구별하고 있다. 동양권에서는 희로애락(喜怒哀樂) 또는 칠정(七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김은영, 2004), 서양권에서는 Joy, Happiness, Anger, Sadness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4>에 정리한 비교표를 보면 학자들이 정의한 인간의 기본 감정은 동서양이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4. 인간의 기본 감정

동양			서양					
孔子	中庸	老子	Descarets	William James	Plutchik (1980)	Panksepp (1982)	Ekman (1992)	Damasio (1994)
喜(희)	喜(희) 樂(락)	喜(희)	Joy		Joy		Happiness	Happiness
怒(노)	怒(노)	怒(노)		Rage	Anger	Rage	Anger	Anger
哀(애)	哀(애) 悲(비)	悲(비)	Sadness	Grief	Sadness		Sadness	Sadness
懼(구)		憂(우)		Fear	Fear	Fear, Panic	Fear	Fear
					Surprise		Surprise	
愛(애)		好(호)	Love Admiration	Love	Acceptance (joy+acceptance)			
惡(오)		憎(증)			Disgust		Disgust	Disgust
慾(욕)		慾(욕)	Desire	Desire	Anticipation	Expectancy		
7	4	7	5	5	8	4	6	5

* 참고자료: Philip Harland(2002), Ungerer & Schmid (1996), 김은영(2004)

* 칠정(七情)은 禮記 禮運에 의하면 喜, 怒, 哀, 懼, 愛, 惡, 慾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인간의 정서를 칠정(七情)으로 구분해 오고 있으며, 김은영(2004)의 분류 체계에 따라 감정 어휘들을 <표 5>와 같이 분류하였다.

3.2.3 평가 어휘

평가는 선악, 미추 등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어떠한 기준에 따른 사태의 판단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평가 어휘는 인간의 도덕 기준, 욕구, 효용 가치에 따라 사물이나 인간 성품에 대한 가치를 주관적 인식에 의하여 평가하는 부류의 어휘이다. 해당되는 어휘들의 예는 <표 6>과 같다.

표 5. 감정 어휘

분류	감정 어휘
기쁨 (喜)	기쁘다, 들뜨다, 살맛나다, 설레이다, 신나다, 신명나다, 신바람나다, 우습다, 유쾌하다, 재미있다, 즐겁다, 행복하다, 황홀하다, 흐뭇하다, 흥겹다, 흥나다, 흥분하다
노여움 (怒)	격분하다, 분하다, 성질나다, 속상하다, 신경질나다, 약오르다, 짜증나다, 화나다, 흥분하다, 원망하다, 탓하다, 불쾌하다, 언짢다
슬픔 (哀)	서글프다, 서러워하다, 서럽다, 슬프다, 우울하다, 억울하다, 고독하다, 고립되다, 고적하다, 삭막하다, 쓸쓸하다, 공허하다, 실망하다, 좌절하다
두려움 (懼)	겁나다, 공포스럽다, 두렵다, 무섭다, 긴장하다, 노심초사하다, 뒤송송하다, 불안하다, 경악하다, 기겁하다, 기절초풍하다, 놀라다, 당혹하다, 당황하다
좋아함 (愛)	감미롭다, 귀엽다, 끌리다, 도취하다, 매료되다, 매혹하다, 반하다, 사랑하다, 아름답다, 예쁘다, 정가다, 정겹다, 좋아하다, 편안하다, 평온하다, 감격하다, 감동하다, 상쾌하다, 자랑하다
싫어함 (惡)	경멸하다, 밉다, 싫다, 알밉다, 역겹다, 증오하다, 혐오하다, 갑갑하다, 답답하다, 귀찮다, 불편하다, 불신하다, 의심하다, 따분하다, 심심하다, 지루하다, 남부럽다, 동경하다, 부러워하다, 부럽다
바람 (慾)	갈망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욕심나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섭하다, 아깝다, 불만족하다, 불평하다, 갈등하다, 동요하다, 망설이다

표 6. 평가 어휘

분류	평가 어휘	
진위성(眞僞)	진실하다, 참되다	거짓되다, 헛되다, 부질없다
시비성(是非)	옳다, 바르다, 맞다, 올바르다	그르다, 틀리다, 어정쩡하다
선악성(善惡)	착하다	나쁘다, 모질다, 그악스럽다, 고약하다, 악하다
귀천성(貴賤)	귀하다, 중하다, 소중하다, 보배롭다	천하다, 상스럽다
미추성(美醜)	아름답다, 곱다, 멋있다, 예쁘다	밉다, 추하다, 흉하다,
난이성(難易)	쉽다, 능하다, 평이롭다	어렵다, 난해하다, 까다롭다
이익성(利益)	이롭다, 유리하다, 달갑다	해롭다, 불리하다, 아깝다
비교성(比較)	같다, 비슷하다, 유사하다, 동등하다	다르다, 차이나다

3.2.4 존재 어휘

존재는 현실에 실제로 있음, 또는 실제로 있는 대상을 뜻한다. 따라서, 존재 어휘는 '사람이나 사물의 객관적인 형태나 특질을 기술한다. 즉, 시공간적 존재 상태, 물형 판단의 존재성, 외면 모습, 사물의 관계, 수량 상태 등에 대한 다양한 존재 양상을 묘사하는 어휘군을 가리킨다. 해당되는 어휘들의 예는 <표 7>과 같다.

표 7. 존재 어휘

분류	존재형용사 어휘		
시간성	빠르다, 빠름직하다	늦다, 느리다, 더디다, 지루하다	
공간성	존재:	있다, 계시다, 존재하다	없다
	원근:	멀다, 멀직하다, 멀다랗다	가깝다, 가깝직하다
	심천:	깊다, 깊다랗다, 깊숙하다	얕다, 얕디얕다
	광협:	넓다, 넓직하다, 너부죽하다	좁다, 좁디좁다
	밀도:	빽빽하다, 칩칙하다, 비좁다, 촘촘하다	듬성하다
층위:	차곡하다, 나란하다, 첩첩하다, 빼곡하다		
형태성	장단:	길다, 기름하다, 길죽하다	짧다, 짧디랗다
	고저:	높다, 높직하다, 높다랗다	낮다, 나즈막하다
	대소:	크다, 커다랗다, 굵다	작다, 가늘다, 잘다
	경중:	무겁다, 무거운직하다	가볍다, 가볍디가볍다
	원각:	둥글다, 둥그스름하다	각지다, 모나다
	후박:	두껍다, 두툼하다, 두텁다, 두둑하다	얇다랗다
	예둔:	날카롭다, 뾰족하다	몽뚱하다, 둔하다
	균형:	곧다, 바르다	굽다, 구불하다, 기울다, 삐딱하다
	수량성	많다, 흔하다, 풍부하다, 가득하다, 그득하다	적다, 드물다,
행동성	휴면, 분주:	바쁘다, 급하다	심심하다, 한가롭다
	신중:	삼가다, 공손하다	방탕하다, 방정맞다, 불손하다
	완성:	완전하다, 온전하다	불완전하다, 불공평하다
	근면:	부지런하다, 민첩하다	게으르다
	강력:	힘세다, 굳세다, 씩씩하다, 용감하다, 엄하다	
	은밀:	그속하다, 비밀스럽다	

표 8. 실내디자인 감성 어휘의 분류

분류	실내디자인 감성 어휘	
감각 어휘 (12)	시각어	(색채어) 컬러플하다, (명암어) 밝다, 어둡다, (청탁어) 맑다, 깨끗하다, 환하다
	촉각어	(표면촉각어) 딱딱하다, 매끄럽다, 부드럽다, (온도감각어) 시원하다, 따뜻하다, 차갑다
감정 어휘 (23)	기쁨	명랑하다, 발랄하다, 재미있다, 경쾌하다
	좋아함	(호 감) 아름답다, 근사하다, 사랑스럽다, 예쁘다, 매력적이다. 멋지다, 친근하다 (안정감) 편안하다, 평온하다, 평화롭다, 안정감을 준다, 차분하다 (통쾌함) 쾌적하다, 상쾌하다, 시원하다
	싫어함	(초조감) 불안정하다, (불편함) 불편하다 (서먹함) 어색하다 (답답함) 답답하다
평가 어휘 (75)	가지런하다, 간결하다, 깔끔하다, 격식있다, 격조있다, 고급스럽다, 고상하다, 고풍스럽다, 권위적이다, 균형잡히다, 기품있다, 기능적이다, 내추럴하다, 다양하다, 단순하다, 단정하다, 단조롭다, 도시적이다, 동양적이다, 동적이다, 로맨틱하다, 명료하다, 모던하다, 모호하다, 미니멀하다, 반듯하다, 복잡하다, 사치스럽다, 신뜻하다, 서민적이다, 섬세하다, 세련되다, 소박하다, 소탈하다, 수더분하다, 수수하다, 심플하다, 실용적이다, 아기자기하다, 아늑하다, 예스럽다, 우아하다, 웅장하다, 원숙하다, 이지적이다, 자연적이다, 자유분방하다, 짜임새가 있다, 장식적이다, 전원적이다, 전통적이다, 절제되다, 정결하다, 정교하다, 정돈되다, 정적이다, 조화롭다, 중후하다, 토속적이다, 통일되다, 클래식하다, 포근하다, 품위있다, 한국적이다, 현대적이다, 화려하다, 화사하다, 형식적이다, 혼란스럽다	
	난이성	간편하다,
	비교성	독특하다, 새롭다, 독창적이다, 특이하다, 변화감 있다
	존재 어휘 (11)	공간성
형태성		경중 - 가볍다, 무겁다, 직선적이다, 곡선적이다
수량성		풍부하다, 풍요롭다
행동성		강력하다, 대담하다

4. 감성 어휘의 분포

인간공학, 감성공학,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의 감성 연구 방법 중 하나가 감성 형용사 어휘 조사를 기초로 한다. 본 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조사된 감성 어휘들을 수집하여 그 어휘들이 3장에서 정리된 감성 어휘 분류 체계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하나의 사례로 실내디자인 분야의 감성 평가 연구(윤정선 외, 2000; 김경숙, 이연숙, 2004; 박혜숙, 윤정숙, 2001)에서 조사된 어휘들이 감각 어휘, 감정 어휘, 평가 어휘, 그리고 존재 어휘 중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부류에 분포시켰다<표 8>. 이를 종합하여 보면, 실내디자인 감성 어휘와

이를 구성하는 어휘군 사이에는 <그림 7>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즉, 실내디자인 감성을 평가하는 감성 어휘들은 각각 어휘, 감정 어휘, 평가 어휘, 존재 어휘 모두에 분포되며, 특히, 평가 어휘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순위로는 감정 어휘이며, 감각 어휘와 존재 어휘는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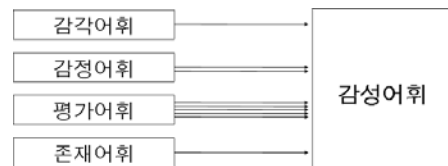


그림 7. 감성 어휘의 분포 (* 선의 개수는 비중과 비례 관계를 의미함)

5. 감성의 측정 방법

오늘날의 심리학에서는 정서 상태를 두뇌 활동의 산물로 보는데,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인간은 흥분을 하게 되고, 이러한 흥분이 신경을 통해 대뇌 피질에 영향을 주어 언어, 표정 등의 반응으로 표출하며, 결국에는 중추신경에도 영향을 미쳐 생리적인 변화까지도 수반하게 된다. 감성 파악을 위한 심리학에서 연구되었던 실험은 주로 언어적인 표현에 의한 '의미분별법(Semantic Differential)', '모호 가중점 검목록(Fuzzy Weighted Check List) 방법'이 있으며, 애매 모호한 감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EEG', 'ECG', 'GSR', 'EMG' 등의 생리 신호 측정이 사용되어 왔다(한국표준과학 연구원, 1993). 그러나, 과학계가 감성과 관련된 생리적 변수를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정밀한 통제, 감성과 관련된 생리적 변수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이구형, 1998).

6. 결론 및 검토

본 연구는 현재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감성' 및 '감성 관련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감성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감성 어휘를 영어와 국문학 관점에서 제시된 형용사 분류 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감성 어휘 분류 체계를 구축해 보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신체 반응만을 동반하는 감정에 비해 직관적, 무의식적, 그리고 복합적인 감정으로 그 의미가 확대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감성에 대응되는 대표적인 영어 표기는 'sensitivity'라고 할 수 있으나, 감성은 sensitivity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emotion과 feeling을 구별하고 있는 다마시오(Damasio, 1994)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감성의 개념은 오히려 feeling이라는 용어와 더 잘 부합하는 개념으로 판단된다.

둘째, 우리말 형용사 분류 체계를 살펴본 결과 '감성'이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감성이라는 용어가 학계에 과급되기 시작한 것은 '인간공학적 제품디자인'이라는 분야가 감성공학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도입된 1990년대 초반이며, 국문학 분야에서는 별도로 구별된 감성 어휘에 관한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문학자들에 의해 분류된 형용사 의미를 내포

하고 있는 '성상(性狀) 형용사'를 '감성 형용사'의 의미로 간주하여, 성상 형용사의 분류기준을 감성 어휘의 분류 체계로 적용하였다. 이 기준에 의해 감성 어휘는 감각 어휘, 감정 어휘, 평가 어휘, 그리고 존재 어휘의 4가지로 분류된다.

셋째, 기존의 감성 연구에서 수집된 감성 어휘들을 이들 분류 체계에 분포시킨 결과 감성 어휘들은 '평가 어휘'에 가장 많이 분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감정 어휘, 감각 어휘, 그리고 존재 어휘의 순서로 분포되었다. 어휘 분포를 통해 본 이러한 결과는 감성의 개념이 평가 어휘, 감정 어휘, 감각 어휘, 존재 어휘 모두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어휘를 사용한 감성 평가 방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인간의 감성은 한글 또는 영어의 형용사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섬세하거나 표현한다고 해도 감성을 정확히 전달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단어의 의미 전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감성 어휘에 관한 연구는 감성의 개념 정립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여러 분야의 학자들과 함께 수행해야 할 추후의 과제이다. 본 연구는 감성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인 의미분별 (Semantic Differential: SD) 법의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학제적 교류를 통한 협동 연구로 감성 어휘의 체계가 더욱 다져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Cannon, W.B., *Bodily changes in pain, hunger, fear, and rage*, 2nd ed, NY: Appleton, 1929.
- Damasio, A., *Descartes' error: Emotion, reason, and the human brain*, NY: Avon Books, 127-164, 1994.
- Ekman, P., Levenson, R. & Friesen, W. V., Autonomic nervous system activity distinguishes among emotions, *Science*, 22, 1208-1210, 1983.
- James, W., What is an emotion? *Mind*, 9, 188-205, 1884.
- Parkinson, B., Emotion, In B. Parkinson & A. M. Colman (Eds.), *Emotion and motivation*, NY: Longman, 1-21, 1995.
- Philip Harland, "HOW THE BRAIN FEELS" - Emotion and Cognition in Neuro-Linguistic Psychotherapy, *Rapport*,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NLP (UK), Issue 57, 2002.
- Ungerer, F. and Schmid, H.-J.,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London: Longman, 1996.
- Zimmer, R., *Handbuch der Sinneswahrnehmung*, Freiburg et al: Herder, 2001.
- 김경숙, 이연숙, 현대실내디자인 스타일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3(4), 12-20, 2004.
- 김미형, 형용사의 의미유형과 구문의 차이, *제효 이용주박사회갑 기념 논문집*, 한샘, 1989.

김은영, 국어 감정 동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4.

김철중, 인간 감성과의 및 측정기술개발, *연구보고서*, 한국표준과 학연구원, 1993.

나가마찌 미류오, *감성공학- 감성을 디자인에 활용한 테크놀로지*, 상조사, 1997.

남기심,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85.

박혜숙, 윤정숙, 생활양식에 따른 실내디자인 선호유형, *한국실내 디자인학회논문집*, 27, 2001.

신순자, 형용사의 분류, *어문논집*, 6, 숙명여대 국어국문학과, 1991.

원종철, 감성과 이성, *인간연구*, 1,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0.

윤정선, 신미경, 이강희, 구아현, 주거환경의 시각적 감성 어휘, *한국감성과학회지*, 3(2), 67-74, 2000.

이구형, "인간감성 특성과 감성의 측정평가", *한국감성과학회 연차 학술대회논문집*, 37-42, 1997.

이구형, 감성과 감정의 이해를 통한 감성의 체계적 측정 평가, *한국감성과학회지*, 1(1), 113-122, 1998.

이구형, 김영준, "감성요소를 포함하는 인지적 의사결정 모형", *한국감성과학회 연차학술대회논문집*, 193-198, 1997.

이순요, 양선모, *감성공학*, 청문각, 1996.

조경덕, 남기춘, *지성과 감성의 심리학*, 웅보출판사, 2002.

천기석, *국어의 동작동사와 상태동사의 체계 연구*, 형설출판사, 1984.

최미경, 감성지능, *연구논집*, 32,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7.

최현배, *우리말본*, 5판, 정음사, 1937/75.

홍사만, *국어 어휘 의미 연구*, 학문사, 1985.

<http://www.askoxford.com/Compact Oxford English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

<http://www.merriam-webster.com/>

<http://krdic.naver.com/>

<http://sb.thefreedictionary.com/>

● 저자 소개 ●

❖ 정 현 원 ❖ hwjung@kimpo.ac.kr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학사, 석사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과정
 현 재: 김포대학 실내디자인과 교수
 관심분야: 감성디자인, 실내디자인, 공감각디자인

❖ 나 건 ❖ knahidas@gmail.com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KAIST 산업공학과 석사(인간공학 전공)
 TUFTS Uni. Eng. Design 박사(인간공학적 제품디자인 전공)
 현 재: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인간공학, 인간공학적 제품디자인, 디자인 리서치

논문 접수 일 (Date Received) : 2007년 08월 07일
 논문 수정 일 (Date Revised) : 2007년 08월 20일
 논문게재승인일 (Date Accepted) : 2007년 08월 22일